

## 지난해에 비해 공급은 원활

지난 한해 동안 유류용온수 보일러 시장은 가히 폭발적 선풍으로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밀려드는 수요를 미처 대응 못한 업체에서는 우선 주문량만 먼저 공급해줘 일반 소비자는 유류용보일러를 구입하려면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아이러니칼한 일도 있었다. 다

체수는 2백4개소, KS업체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경동, 로켓트, 대일, 대원, 신진, 삼원, 새생활, 성호보일러 등 30여개 정도로 시장규모는 작년도 수준이 1천 3백억 정도였다.

## 각사별 치열한 각축전

제조업체들이 미처 연탄라인에서 기름라인으로 체제 전환에 앞서 소비자 요구가 앞

특집 / 진단 1989, 가정용보일러시장을 가다

유류용온수보일러

# 유가동향에 꿈틀거리는 유류용 온수보일러 시장

작년 하반기 유류용온수보일러 시장은 밀려드는 수요에 미처 공급이 원활치 못해 소비자나 공급자의 소통이 힘들었던 한해 였다. 정부측에서 밝힌 유가동향은 '90년 중반까지 현재의 유가를 고수할 경우 올해의 유류용온수 보일러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 신에 업체들이 선발업체를 육박하며 무서운 기세로 올 상반기 유류용 보일러 시장을 강타할 경우 시장점유율의 경쟁은 가히 폭발적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는 '89년도의 유류용온수보일러 시장의 전망을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각적인 배경이 유류용보일러의 성시를 이루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우선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주요원인이었으며 국민의식 수준향상, GNP 성장등이 보다 편리하고 청결함을 찾는 것이 소비자들의 폭발적 요구로 분석된다.

국내 유류용보일러 제조업

서자 투자를 미처 못한 실정이었으며 앞으로 가스보일러 시장의 전망이 밝은편이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해 더욱더 수급 불균형이 있었다.

올해에는 2백여개 업체중 기존의 KS업체 말고도 연탄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올 상반기 유류용보일러시장을 겨냥 시

제품을 내놓고 있어 작년에 비해 소비자들은 상품구입이 용이 하겠지만 업계쪽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로켓트보일러공업(주)는 작년 시장점유율이 40% 정도였는데 올해 판매 목표액도 전년도 수준정도 일것이라 말한다. 타사에 비해 많은 기술축적을 보유하고 있는 로켓트보일러는 올해에도 전열면적을 최대로 높이고 제품의 소형화작업에 따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유류용보일러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로켓트는 국내시장의 지속적인 석권을 위해 판매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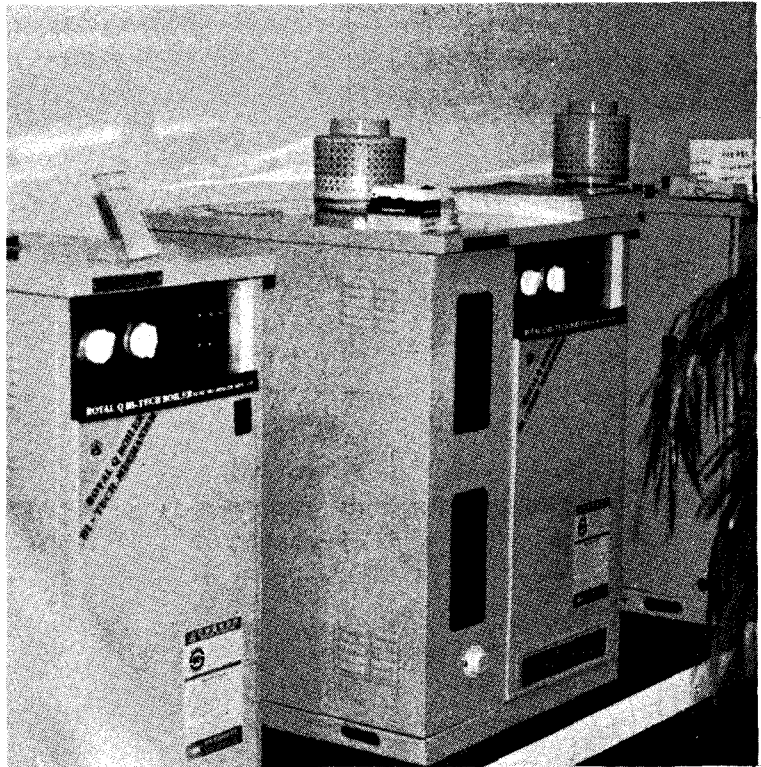
또한 아무리 완벽한 제품일지라도 소비자의 사용부주의와 시공자의 설치부주의로 A/S가 많이 난다고 한다.

시공업자는 보일러를 시공할때 시방서에 의해서 설치하며 배관설비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일러는 설치가 끝난후 물을 배관에 주입할시는 충분한 에어를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용자 또한 취급설명서를 충분히 숙독한후 보일러를 운전해야만 하고 유류주입시 불순물 제거 확인을 잊지 말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것이 보일러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한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가 전체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에서 25~30%정도였던 경동보일러에서도 올해의 판매목표액도 전년도 수준이거나 조금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F·F보일러를 제일 먼저 선



보였던 경동보일러는 예전에는 보일러와 버너를 따로 판매했으나 이젠 거의 모든 보일러 업체들이 하나로 배치하여 시판하고 있다.

버너의 변천도 기압펌프식에서 전자펌프식으로 바뀌어 왔으며 KS업체들 나름대로 기술축적을 위해 기술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산화의 실현을 위해 향후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경동 보일러는 다양한 모델로 보일러시장에 선보였으나 작년말부터 4가지 모델로 단일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대량생산의 규모를 '87년 5월 시설발주되어 유류용보일러 시장에서선 늦은감이 있었다고 하나 매월 5백대 이상 구

준한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으며 매출액 달성에는 전년도에는 미비한 반면 올해의 판매 목표량은 3백% 신장세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원자재 수급불균형으로 5~7%의 영향을 원가에 미쳤으나 소비자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말하는 경동보일러 측은 소비자의전카드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분석 했는데 '88년 하반기에만 연탄보일러에서 유류용 보일러로 교체가 70%정도였는데 소비자들의 취급부주의로 A/S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탄보일러는 별다른 소비자의 지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콘트를 박스에서 전자동으로 운전되는 유류용보일러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소비자

들이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를 해주어야 제 성능과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노즐이나 오일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막히면 기름이 분무되지 않거나 통과되지 않아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는 노즐과 필터를 분해하여 깨끗한 기름으로 세척해 주어야 한다. 청소를 할 때는 먼저 보일러의 전원을 차단하고 보일러가 완전히 식은 다음 실시해야 한다.

보일러에서 버너를 분리한 다음 연통과 소음기를 빼어내고 브러시를 사용하여 내부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경동보일러는 A/S팀의 원활한 활동만이 판매이후의 자사의 평가를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올해에는 전년도 A/S팀의 두배에 달하는 인원과 차량을 보완해 올해 유류용보일러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신진기계(주)는 올해에는 신진 쉐웨이보일러를 능가하는 After보일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험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성능의 단계까지는 밝히기를 꺼려하는 신진기계는 확실한 것은 기존 유류용보일러보다 소음은 더 작은 보일러 일것이라 말했다.

작년에는 시장점유율을 많이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생산량이 공급량을 못따른 실정이었기에 올해는 작년 목표액의 3백% 성장세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유류용보일러 시

장은 유가의 안정세로 올해에도 성장세 일것이라 예측했다. 완제품생산에도 불구하고 설비업자의 실수로 A/S건이 많이 발생했다며 설비업자들은 시설을 할때에 설치 장소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수년이 지나도 경사지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일러의 바닥과 연통이 지나가는 벽 부분은 단열재를 사용하고 배관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이음부에 누수가 없고 배관내에 공기가 차는 곳이 없도록 배관부 최고부에 공기 배기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기름탱크는 누유 부분이 없고 기름의 잔량을 알 수 있는것을 골라 버너와 수평이거나 약간 높게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8년하반기 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해 실질적인 시장점유율면에 만족할만한 판매는 못했으나 올해에는 큰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는 (주)대일, 생산증가를 위한 투자보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선진 외국과의 꾸준한 기술제휴로 가스보일러 시장에도 선보일 꿈을 가지며 IC회로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는 최첨단 마이콤회로를 채용한 컴퓨터 보일러란 타이틀로 유류용보일러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대원보일러.

또한 신예 젊은이들로 자사의 연구팀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유류용보일러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는 (주)삼원, (주)새생활, 진카트보일러등 그야말로 기름보일러시장은 올해에는 각축전이 심각할 전

망이다.

## 유가안정은 유류용보일러시장 밝은 전망 도모

유류용보일러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는 유가의 지속적 하락세와 안정세의 상승무드를 탔기 때문이다.

올해의 유가동향을 정부측에서 바라보는 견해는 90년대 중반에 자유세계의 석유생산 감소로 제3의 석유파동이 일어난다면 '86년의 실질가격 수준인 22달러까지 상승되리라는 전망이고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와 같은 저유가 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측면에서 유류용 온수 보일러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은편이다. '88년의 유류용보일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유류용보일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현재 우수업체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자사의 기술개발의 소지보다 타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유사품목을 생산, 소비자를 현혹하여 기술개발에 역점을 둔 기존업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올해의 유류용보일러 시장에는 선발업체는 선발업체 나름대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후발업체는 기술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비를 설정하여 시장에 진출할 경우, 유가의 지속적 안정세에 유류용보일러의 1천5백억시장규모는 불꽃튀는 각축전이 가히 예상된다. <최미련 기자>